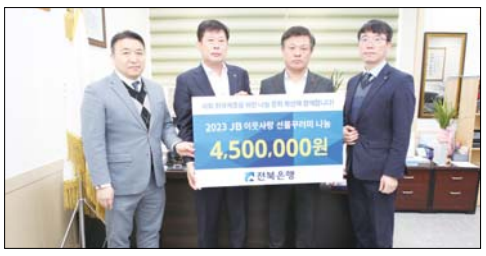
최인숙 제15대 생활개선순창군연합회장 취임

"역대 회장님들의 업적을 거울삼아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농촌 여성의 지위 및 권익향상과 농촌을 지켜나갈 후계 세대를 키워나가는 모범적이고 사랑받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8일 순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 최영일 순창군수로부터 제15대 생활개선순창군연합회 신임 회장으로 임명받은 최인숙씨의 취임 다짐이다.

생활개선순창군연합회는 지난 1994년 조직된 여성 농업인 단체로 400여명 회원 및 35명의 임원진으로 구성돼 매년 경관 조성을 위한 국화재배, 장류축제 숯불구이 체험장 운영, 김장 봉사, 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으며 환경보존 활동 및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앞장서는 여성 농업인 학습단체다. /순창=이양원 기자



정읍시, 저소득층 위한 후원 물품 기탁 이어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8일 정읍시청을 방문해 450만원 상당의 이웃사랑 선물꾸러미 150박스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전북은행 2지역 본부 김영민 부행장, 송기택 정읍지점 지점장, 김태석 정읍시청 지점장이 참석했다.

이날 선물꾸러미 전달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악화로 기부 문화가 상대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즉석밥과 라면, 카레, 짜장, 국수, 김, 커피, 칫솔, 치약, 물티슈 등 11종의 생필품으로 구성된 꾸러미는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 골고루 전달될 계획이다.

같은 날, (사)한국쌀전업농 정읍시연합회(회장 고광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250만원 상당의 정읍 생산 쌀 10kg 100포를 전달했다.

1992년에 설립된 한국쌀전업농 정읍시연합회는 정읍지역 쌀 생산 농가 1,1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합회는 미래 농업 대안 제시와 농업정책토론회, 농식품부 쌀 정책 공청회 참여 등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기부받은 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결식 위기가정에 제공될 예정이다.

칠보초등학교 4학년 임건우 학생은 부모님께 받은 용돈 83,250원을 칠보면사무소에 전달했다.

이학수 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지속적인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전북은행과 한국쌀전업농 정읍시연합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 기관·단체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소외되는 이웃 없이 살기 좋은 정읍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이어져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미래세대를 위한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무주읍 신윤식 씨(6.25참전유공자회 무주군지회장)와 ㈜남일인터내셔널에서 지난 7일, 8일에 각각 1백만 원씩 장학금을 기탁했다.

신윤식 씨는 "우리의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싶었다"라며 "앞으로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기탁의 뜻을 밝혔다.

㈜남일인터내셔널 김우찬 회장은 "무주의 미래를 희망 있는 고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남일인터내셔널은 무풍에 있는 지역업체로 10년 넘게 세계 각지의 우수한 제품과 원료를 수입해 공급, 각종 고품질의 입욕제를 자체 생산하고 있는 입욕제 전문기업이다.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황인홍 이사장은 "고향사랑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문화예술 르네상스시대 여는데 최선"

서현석 대표, 한문연 호남·제주지회장 당선… 5대 공약 실천 약속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서현석 대표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한문연) 호남·제주지회 2023년 정기총회에서 제5대 지회장으로 선출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서 대표는 8일 여수 예울마을에서 44개 회원기관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호남·제주지회 제5대 지회장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임기는 2023년 3월부터 3년간이다.

서 대표의 당선은 그동안 호남·제주지회장 선거가 호선방식이었던 것과 달리, 경선방식으로 변경돼 치른 첫 번째 선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선거에서 서 대표는 △지회 및 예술단체기관과의 소통과 단합의 장을 위한 '호남제주지회 Festa' 개최 △실무진 중심 현장 의견 반영된 참여와 자기개발 기회 제공 △찾아가는 워크숍 통한 문화교류의 장 마련 △실무위원회 구성 지회 활성화와 현장의 정책 반영 △회원기관 무대종사자 연수 프로그램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회원기관들의 표심을 이끌어냈다.

서 대표는"지역문화예술 활성화라는 대명제 아래 지역문예회관의 역할이 갈수록 강조되는 상황에서 호남·제주지회장이란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호남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예술시설로서 20여 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회원기관들과 공유하고, 약속한 공약도 반드시 실천해 지역문화예술의 르네상스시대를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문연은 문화예술회관의 균형 발전·상호 협력 증진·예술 유통, 소외계층을 비롯한 국민의 문화활동지원 등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유관기관으로, 전국 7개 지회에 225개 문예회관이 가입돼 있다. /장은성 기자

조병두 제전김제향우회장, 고향 찾아 최고액 기부

김제시는 조병두 제전김제향우회장이 지난 7일 고향사랑기부제 최고액인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제시 복죽동이 고향인 조 회장은 향우 기업가로 제전김제향우회장으로 선출된 후 향우회 발전과 고향인 김제시랑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왔으며 이날도 바쁜 일정속에서 특별히 시간을 내어 김제시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김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향우회원들이 있음에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처음 시행되다 보니 장점과 혜택이 많은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모르고 있는 듯하다"며 "이번 기부가 김제를 마음속 고향으로 여기는 많은 분들이 동참하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성주 김제시장은 고향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번 조병두 재전김제향우회장님의 방문으로 향우회원들의 참여가 많이 늘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조병두 재전김제향우회장은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에 따른 답례품(150만원)을 다시 관내 교월동행정복지센터에 재기부하여 저소득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도움이 되길 희망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가속화된 저출산·고령화로 지역 및 인구 소멸위기에 놓인 지자체에 재원 마련의 길을 열어 주면서, 동시에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덕진소방·완산소방서·시니어클럽 소방안전 위해 맞손

전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전주덕진소방서, 전주완산소방서, 전주시니어클럽이 전주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노인사회활동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8일 노인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노인 계층의 소방업무 보조 지원으로 전주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전주덕진소방서와 전주완산소방서, 전주시니어클럽이 소방안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캠페인 등 홍보·계도를 통한 재난 예방, 소방차 양보 운전 홍보 및 소화전 주변 주·정차 차량 계도, 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 무상 보 등 소방안전 수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게 된다.

전주시니어클럽은 노인 계층 사회 참여 여건 조성과 노인 계층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04년 3월 설립된 기관으로 농가 일손 도우미 사업,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 아동 돌봄 지원사업, 공공시설 환경정화사업, 무료 문화공연, 공공형 빅데이터 수집 사업 등 다양한 공익 활동과 사회서비스 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어르신들이 시민의 안전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며 지혜와 경륜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인 만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올바른 사회문화를 지켜나가는 어르신들의 노력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예수병원 '제2회 간호대생 선교캠프' 성료

예수병원은 '선교병원과 함께 의료선교를 그리다'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전국 간호대생 선교캠프를 성황리에 마쳤다.

예수병원 간호대생 선교캠프는 한국기독교의료선교회와 국제의료협력단(PMCI) 예수병원이 공동 주관해 전국 간호대생 25명을 예수병원에 초청해 캠프활동으로 이어졌다.

선교병원의 중심에 선 예수병원 의료진 역할과 현장을 소개하는 자리를 통해 선교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의료선교캠프다.

김병선 국제의료협력단(PMCI)대표는 "지난 의대생 선교캠프를 준비하며 전국에서 선교병원과 함께 의료선교를 꿈꾸는 의료진들을 많이 경험했다. 예수병원이 가진 정체성에 관심을 가지고 전국에서 모인 의대생과 간호대생을 생각하면 125년 동안 이어온 예수병원의 의료선교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새남원라이온스클럽, 사랑의 집 고쳐주기 펼쳐

새남원라이온스클럽(회장 이영록)에서 남원노인복지센터와 향교동행정복지센터의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구를 추천을 받아 2가구를 선정하여 지난 7일부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사랑의 집고쳐주기 리모델링 사업을 착수했다.

먼저 가구 내 오래도록 치우지 못하고 적치해둔 생활쓰레기를 치우며 창호틀, 단열 도배, 장판 등 주택수리에 필요한 기자재 1000만원 상당을 구입하고 회원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손수 공사를 10일까지 진행해 지원 대상자가 체감하는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영록 새남원라이온스클럽 회장은 "강추위로 마음까지 쓸쓸해지는 계절을 저희 회원들의 봉사로나마 보다 따뜻한 겨울을 났으면 하고, 앞으로도 꾸준한 봉사 실천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안전보건경영 선포식 개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전라북도 농생명바이오산업 발전을 선도하는기관으로서 안전보건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같이하고자 안전보건경영 선포식을 8일 개최했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근로자와 이해관계자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한다"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언문에 따라 바이오진흥원는 기본가치가 안전에 있음을 선포하고, 안전경영방침을 바탕으로 안전한 근로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기관장의 경영의지를 반영해 공표했다.

앞으로 안전보건 경영체계 고도화를 위해 선제적인 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추진해 업무의 표준화 및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근로자와 이해관계자의 안전과 보건을 기관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아기자

예수병원, 캄보디아 예수병원 설립차 프놈펜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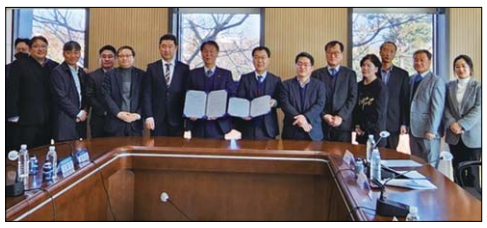
전주예수병원이 캄보디아 예수병원 설립을 위해 캄보디아 프놈펜을 지난 7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캄보디아 예수병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1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3년간의 준비 끝에 마련됐다.

신충식 예수병원장과 핵심 관계자 6명은 센속병원과 임대협약식 현판식을 진행하기 위해 함께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한 것이다.

작년 11월 캄보디아 환경부 차관이며 센속병원(Sensokiuh)의 병원장인 사보 오자노(Dr. Sabo Ojano) 병원장이 전주 예수병원을 방문해 캄보디아 의료 향상과 양 병원간 협력에 대한 환담을 가졌다.

이번 예수병원 관계자들의 프놈펜 방문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선교병원 설립을 알리며 의료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조아록 기자



호남지방통계청-제주연구원, 통계데이터 업무협약

호남통계청과 제주연구원은 제주연구원 회의실에서「통계데이터 제주센터 개소 및 지역통계 발전 협력」위한 업무협약(MOU)을 8일 맺었다.

호남통계청은 제주연구원과의 협약을 통해 제주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를 연구·개발하는 데 크게 활용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향군, 사랑의 선물 전달

전주시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이하 미망인회) 전주지회의 겨울나기용 사랑의 선물(100여 만원 상당)을 전주시재향군인회 회의실에서 지난 7일 전달했다.

제64차 정기총회를 실시한 전주향군은 조익현회원(고경실업)으로부터 기부받은 최고급 기능성 발열내의를 회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에게 전주향군 '사랑의 선물'이란 주제를 붙여 전달식을 진행했다.

미망인회 전주지회(회장 허수영)은 전몰·순직군경 유족의 처를 회원으로 하는 보훈단체로서 현재 전주지회는 약 1000여 명의 회원이 등록해 활동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본사 내방

▲서거석 전북도교육감